

았던 여러 작가들에 의해 낭만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준 친구적 텍스트로 더욱 널리 이름을 알렸다. 우여곡절이랄 것도, 복잡다단한 사건이랄 것도 없는 두 어린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이토록 오랜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언젠가 우리가 꿈꾸었던 순결한 사랑이 생경한 이국정취 속에서 펼쳐지는 자연을 만나 깊은 울림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폴과 비르지니는 청춘의 순수함과 완벽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바나나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행복이 태풍과 함께 산산조각 날 때마다 모든 세대의 심금을 울려왔다. 이 감미롭고도 서글픈 꿈은 머나먼 열대의 잃어버린 낙원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천진한 기억처럼 남아, 언제까지고 끝없는 매혹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매혹의 시작에는 생피에르 자신이 1768년부터 1770년까지, 실제 약 3년간 프랑스 섬(현재의 모리셔스)에 머물며 몸소 관찰했던 자연과 그 생생한 기록이 있다. 그 만큼 『폴과 비르지니』는 현실에 바탕한, 그러나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직 미지의 세계였던 열대 섬의 정경을 자세히 그려 보인다. 두 가족이 살아가던 분지에서 풀이 가득했던 정원으로, 비르지니가 떡을 감던 쉼터로, 다시 노인의 집 앞에 펼쳐지는 녹음으로, 소설은 섬 곳곳을 누비며 사건 사이사이로 야생의 풍요와 열대의 화려한 색채를 감각하게 한다. 아가티스, 포인시아나, 타타마카, 캐비지야자 등 낯선 땅의 식물 이름을 읊고, 형형색색의 바닷새들을 큰 설명도